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보았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 리설주녀사께서 도종환장관을 비롯하여 남측인사들과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월초 《봄이 온다》라는 공연제명이 붙잡혀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연을 보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성의껏 훌륭한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온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도종환장관을 비롯하여 남측인사들과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봄이 온다》라는 공연제명이 붙잡혀 시간을 내지 못할것 같아 오늘 늦더라도 평양에 초청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에창곡들을 열창하였다. 심한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출연자들은 관람자들과 뜨거운 정을 안고 인사도 나누고 자기들의 평양방문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과 남이 하나되어 화합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공연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로 막을 내리었다.

민족의 화합을 념원하는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마음들이 합쳐져 하나의 겨레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자들이 남측예술인들에게 꽃다발들을 안겨 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출연자들에게 따뜻한 손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남측예술단의 주요배우들을 만나시여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며 훌륭한 공연으로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면서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후 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남측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의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남측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제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그 일행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석상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분명한 국내의 정치일정속에서도 자기들을 친절히 초청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만

나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자기들의 이번 평양방문목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의 올림픽경기대회로, 성공적인 올림픽경기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헌을 하신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올림픽의 리념에 맞게 북한선수단이 공동입장하고 올림픽력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하고 출전함으로써 북과 남의 평화와 화해의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며 최대의 감동을 불러일으킨 올림픽으로 되였다고 자기의 심정을 퍼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20년 도쿄올림픽경기대회와 2022년 베이징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준비를 장기적으로 협조하며 올림픽연단을 비롯한 국제체육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조선의 체육발전에 힘껏 기여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규정과 관례를 초월하여 특례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준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올림픽경기대회는 올림픽으로서도 성공하였을뿐아니라 북과 남

의 새로운 화합의 장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올림픽이었다고 하시면서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길을 열어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금까지 그 어떤 정치적환경과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고 우리에게 대한 협조를 성의껏 해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 나라의 체육정책과 그 전망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겨울철체육종목을 비롯한 여러 체육종목들을 세계적추세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추켜세우는데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훌륭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이 우리 나라에 벅으로 자주 오길 바란다라고 따듯이 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함께 국가너자축구종합팀과 평양체육단 너자축구팀사이의 축구경기를 보시였다.

본사기자

대를 이어 위인을 모신 민족의 긍지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였다.

지금으로부터 스물다섯해 전인 주제82(1993)년 4월 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것은 민족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할 수 있는 밝은 앞길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성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어 민족사에 길이 빛날 크나큰 업적을 쌓으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동서맹전이 조미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준엄한 시기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인민군부대들과 최전연의 초소들을 찾고찾으시어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고 그 어떤 무기도 척척 만들어낼수 있게 나라의 국방공업도 튼튼히 다져주시였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견지명의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오신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송고한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고난과 시련속에서 강국건설의 용대한 설계도를 펼쳐시고 불타는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가 그이께서 구상하고 념원하신 사회주의강국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끄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신것은 절세의 애국자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의 모진 제재압박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위력, 수많은 현대적인 생산기지와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지식경제강국건설의 힘찬 돌음에는 조국번영의 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벌을 보시면 정답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위주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조국과 인민이 그려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불러보시였다. 폭파와 췌기밤, 단발숨웃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

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열도가 얼마나 높은것이였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있어서 애국은 나라와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였고 희생적인 헌신이였다. 그이의 위대한 생애는 말 그대로 라오르의 애국의 불길이었다.

조국통일의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 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가갈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송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내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실권장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되었고 그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표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은 6.15통일시대의 개척과 전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고 활력소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진두에

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 지금으로부터 6년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신 력사적사변이였다.

천출명장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지난 6년간 나라의 국력은 최상최대로 강화되고 공화국은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전략적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최근 그이께서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은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부강번영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시였다.

위인의 탁월한 령도밑에 북남관계에서도 지금 따스한 봄기운이 감돌고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다. 불과 수 십일여간에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극적으로 뒤바꾸어놓은 것이기에 대한 경관과 정세의 목소리는 온 남녘땅과 세계를 진감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애국의 령도를 받들어갈 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도, 조국통일도 이룩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으로 새겨진 믿음이다.

위인의 령도의 손길밑에 공화국은 최후승리의 명마루에로 치달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듯한 봄처럼 겨레의 마음을 후덥게 달구며 온 강토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기운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공화국의 진지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 열리고있다.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향이 이루어지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북남관계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고있다.

은 민족이 페부로 실감하고 세계가 공감하는 북남관계에서의 극적인 전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전략적구상과 확고한 통일의 지, 통근 결단과 과격적조치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

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시면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라와 민족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지향하여나가고있

은 오늘날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계속 반복될시하며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막고 의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어리석은 일이다. 더이상 민족의 분열이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는것이 겨레의 열망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북과 남이 다같이 의의있는 대사를 치르는 올해를 민족사에 뜻깊은 해로 되게 하기 위한 구상을 펴시고 대범하고 통이 큰 제안을 내놓

은 조신인민들속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대구에 사는 한 제야인사는 《김정은위원장님은 보통의 담력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내용단과 예측할수 없는 지략,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는 천출위인이시다.》

의 결단은 막혔던 북남관계의 물줄기를 한순간에 터치고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 가슴벅찬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자주통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이 뚫린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퍼력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이렇게 평하였다. 《북은 민족의 정사를 성공시키는데서 동족으로서 용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을 통해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이어 통일열기가 온 삼천리에 넘쳐나게 만들었다.》

영국 BBC방송은 《현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역할을 하는분은 김정은위원장이며 절묘한 외교행동을 보였다고.》라고 전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새로운 전환의 국면이 펼쳐지고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손학미

다. 김정은위원장님께서서는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남북관계개선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가고계신다. 김정은위원장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운명이시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절세의 위인이시다.》고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민족화해의 흐름을 펼쳐주시어

위인칭송의 목소리

고 하면서 《현시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있는것은 다 그분의 탁월한 령도력의 결과이다. 세계정치흐름을 힘있게 주도해나가는 김정은위원장님께서

게시어 《한반도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고 찬양하였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성원은 《김정은위원장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겨레는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

